

사무직 뽑는데 “키·가족학력 써내라”... 위법 채용 적발

고용부,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상반기에만 123건, 과태료 등 조치 ‘채용 건강검진 사비로’ 황당 사례도 공정채용법 개정안 연내 마련 계획

채용 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정부에 적발됐다. 일부 기업은 구직자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등 채용 심사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23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고용부가 사업장 62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한 결과 100곳에서 12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4건이 개인정보 요구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가족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이미지

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호텔의 경우 올해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내면서 이력서에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호텔 포함 개인정보 요구 4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모 병원은 올해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고용부는 채용심사 비용 전가로 보고,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돌려주라고 시정명령했다.

한 제조업체는 올해 6월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고용부는 채용 여부 고지 등 106건의 위반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병수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채용 대상자를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최악 적자’ 한전, 아트센터 부분매각 검토

2~3층 스포츠클럽 부분매각 총면적 3484㎡, 750억 추정

한국전력이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데 쓸 계획이란 분석이다.

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2~3층에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매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아트센터의 부분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하에 변전소가 있어, 스포츠클럽만 따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 낸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그 대금은 부채를 갚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아트센터 부분매각은 당초 한전

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 영업손실이 심각해 추가적인 자산매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앞서 지난 5월 18일 전력그룹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안을 통해 약 6조원대 재무개선에 나서기로 했었다. 특히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15개소와 그룹사 보유 부동산 10개소 등을 즉시 매각하는 등 부동산 조기매각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아트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그간 한전아트센터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한전아트센터는 서울 서초동 대지 2만6300㎡에 지하 3층~지상 17층, 건물 연면적 6만2906㎡ 규모로 2001년 4월 개관했다. 인근 공시지가가 ㎡당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 매각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 매각이 검토되는 스포츠클럽은 본관 2~3층, 총 면적은 3784㎡ 규모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750억원대로 추정된다.

한전이 당초 계획에 없는 자산 매각을 서두르면서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8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연간 20조원을 훌쩍 넘는 손해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스·전력 도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분 가스 도매가격은 Gcal당 14만4634원으로 전달보다 13.8% 상승했다. 이는 전년동월의 2.4배 수준이며 2년 전보다는 4.3배에 달한다.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가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가스 가격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전력 도매가격도 역대 최고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풍력발전사업 경쟁입찰제 도입

550MW 규모 경쟁입찰 공고 내달 말 선정... 20년 장기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풍력발전 사업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이번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인 환경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될 풍력입찰위원회가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10월 말경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20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우돕기 호소에 선행 펼친 기업 ‘눈길’

한 부사관, 병마와 싸우는 전우 위해 휠체어 제조기업에 지원요청 호소 사측, 조용히 휠체어 전달 ‘훈훈’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수뇌부와 자취를 감춘 전우에”라는 최근 무서워진 군 내부 분위기 속에서, 태풍도 이겨낼 미담이 <메트로경제신문>으로 날아왔다. 경기 성남의 수도병원에 입원한 군인이 자신보다 더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전우를 돕기 위해 민간기업에 도움을 호소했고, 장애인 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던 해당 기업이 소리소문 없이 즉각 지원을 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5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해군 부사관은 본지에 “부대 업무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 출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육군 A소령이 체격에 맞지 않는 병(兵)용 휠체어로 힘들게 병수발을 받고 있는데, 입원 중이던 육군 B상사가 휠체어를 제작하는 민간기업에 휠체어를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B상사가 A소령을 돕기 위해 보낸 글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본인의 건강관리를 못한 A소령은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70세 모친이 3년 동안 대·소변과 예후 관리에 혼신을 다해왔지만, 체격에 맞지 않는 군용 휠체어(병이 사용하던 것)를 쓰다가 넘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자신을 같은 병동에 생활하고 있다고 밝힌 B상사는 “위험해서 마음을 졸이고, 늘 조마합니다. 귀사의 대표께서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도 하신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라며 “(간병 중인) 노모를 생각해 휠체어를 기부형식으로 도와주시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A소령은 꼭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간곡한 부탁을 민간기업에 호소했다.

이 감동적인 요청을 받은 기업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사로, 프리미엄 맞춤형 휠체어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이



성실히 군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재까지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A소령이 5일 오후 휠체어 전문기업 W사로 부터 휠체어를 지원받은 모습. /익명의 해군부사관

다. 이 기업은 2007년부터 스포츠 휠체어를 개발해,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 선수들을 지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보를 받고 본지가 W사측에 휠체어 지원요청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회사 관계자는 “지원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논의가 끝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W사는 언론에 밝히지 않고 이날 오후 조용히 국군수도병원으로 휠체어를 전달했다. 휠체어가 전달된 사실은 본지에 최초로 제보한 해군 부사관이 사진을 전달해서 알 수 있었다.

전우를 생각하는 B상사의 따뜻한 전우애와 국가에 헌신한 군인을 조용히 지원해준 W사의 숨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현·예비역 군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나도 A소령을 돕고 싶다. 도움 줄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를 보내면서 “W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군용 휠체어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군수뇌부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수뇌부와 매달라가는 전우애만 봐온터라 복무증에 빠졌는데, A상사의 전우애와 W사의 선행 소식으로 군복무에 힘을 얻었다”며 “군이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이 먼저도와 준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